

이란 핵 협상 타결 난항

2015년 7월 13일

[Daily 뉴스브리프 원문보기]

7월7일, 이란 주요 6개국과의 핵 협상 수일간 계속 될 것으로 예상

7월3일, 이란, 핵협상 마무리 단계 돌입

[참고자료]

CNN, THE GLOBE AND MAIL, OILPRICE.COM, albwaba BUSINESS 등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7자 회담이 여전히 결말을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이란과 주요 서방 6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간의 핵 협상이 마감시한을 연장함에 따라 또 다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란 핵 문제, 국제 현안으로 부상

이란의 핵 문제는 지난 2002년 이란 저항국민협의회(NCRI)가 이란 정부가 2개의 미신고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란 정부는 자국의 핵 관련 시설이 전력생산 등의 평화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지만 이와 상반되는 증거와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이후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UN)이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 핵시설을 사찰하는 등 국제 사회가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란 정부가 비밀리에 핵무기 생산을 추진함에 따라 핵 협상은 난항을 거듭해왔다.

여전히 안개속인 이란 핵 문제

지난 2013년 이란과 주요 6개국 간의 핵 협상이 잠정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이란 핵문제가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란과 주요 6개국 간의 핵 협상이 잠정합의를 도출한 이후, 실질적인 협상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 시설 사찰과 경제·금융 제재 해제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이견이 계속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란은 군 사찰을 반대하고 경제·금융 제재의 빠른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 등 6개국은 이란 군 시설의 전면 사찰과 점진적 경제·금융조치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 차이로 인해 최종 협상타결 시한이 2015년 6월 30일에서 7월 7일로, 다시 7월 7일에서 7월 10일로 연기되었다.

대이란 경제 제재 해제 조짐

아직 이란 핵 협상이 최종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협상타결에 매우 근접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이란과 6개국이 경제 제재 해제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6개국은 대이란 경제 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다. 프랑스는 이란과의 실질적인 교역 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외무장관이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이란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연방경제에너지장관 또한 핵 협상 타결을 대비해 이란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이란 정부는 핵 협상 타결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란은 2002년 붙어진 핵 개발 의혹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잃어버린 10년을 청산하고 경제발전에 힘써야 한다는 분위기가 이란 내에서 고조되고 있다. 세 번째로 연기된 시한인 7월 10일까지 이란 핵 협상이 최종 타결될 지에 대해 세계 각국의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출처 : RT.COM

- 콘텐츠 자문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이머릭스(EMERICs) 상의 콘텐츠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 본 페이지에 등재된 모든 자료는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